

경구용 혈당 강하제

메티롤엠 정 2/500mg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함량】 1정중
글리메피리드(KPC) 2.0mg
메트포르민염산염(USP) 500.0mg
첨가제(동물유래) : 유당수화물(네덜란드산 소, 우유)

【성 성】 환색의 정장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환자에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과 병행하여－글리메피리드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효과가 불충분한 경우－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의 대체

【용법·용량】

이 약은 식사전전 또는 식사와 함께 1일 1~2회 투여하십시오.
각 환자의 현재 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 고려하여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혈당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저용량으로 치료를 개시하고 환자의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혈당치를 고려하여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임상시험에서 1일 초기 용량은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2mg/500mg이었고, 혈당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점차 증량하여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8mg/2000mg까지 투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일제 글리메피리드는 일반적으로 하루 4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했을 때 추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몇몇 환자들은 6mg(또는 8mg)까지 증량 시킴으로써 더 나은 대사조절을 보였습니다.

병용요법의 대체 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병용투여 받고 있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용법·용량에 근거하여 투여하십시오.

이전 복용을 누락한 경우라도 다음 복용 시 1회 용량을 초과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 경고
 - 심한 유산산증 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신혈관계 사망률의 증가 위험
경구용 항당뇨병약의 투여는 식이 단독요법이나 식이와 인슐린의 병용치료와 비교하여 신혈관계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차이 약물이 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University Group Diabetes Program(UGDP)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기초합니다. 5-년 동안 식이요법과 구경당인슐린 물부터미딘(1.5g/day) 혹은 식이요법과 구경당인슐린의 환들빈(100mg/day)을 투여받은 환자는 신혈관계 사망률의 비율이 식이요법만을 실시한 환자의 약 2.5배라고 UGDP에 보고하였으며, 이 두 투여군의 투여중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해석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GDP 연구의 발견은 이러한 경계에 대한 합당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환자에게 이 약과 다른 형태의 치료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에 대해 주의시켜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설포닐우레아제 중 하나인 약물(톨부타마이드)과 비구아니이드제 중 하나(텐글로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제의 약물 중 작용원리 전과 화학적 구조의 유사성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를 다른 관련된 항당뇨병 약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 인슐린-의존형(type 1)당뇨병 환자(예:케톤혈증의 병력을 가진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케톤혈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환자, 급성 혹은 만성 대사성산증
 - 본제의 성분 또는 설포닐우레아제, 설르아미드제, 비구아니드제 약제에 대해 과민증의 기형력이 있는 환자
 - 중증 간기능장애 환자 또는 혈액학적 환자에 대해서는 사용 경험이 없습니다. 중증 간기능 또는 신기능장애 환자에서는 최적의 혈당조절을 이루기 위해 인슐린요법으로의 전환이 권장됩니다.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유산증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의 환자, 유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신혈관계 허혈(속), 급성심장색과 패혈증과 같은 상태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는 신기능 이상이나 신기능 부전(혈장 크레아티닌치가 1.5mg/dL이상[남성], 1.4mg/dL 이상[여성], 혹은 비정상적인 크레아티닌 청소율인 경우)
 -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에 : 정맥요조영술, 방사선단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사용한펄티드진찰영술등)을 받은 환자(금속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에서는 이 약을 적어도 투여 48시간 전에 중지해야 하고, 48시간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정상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하십시오.) 이외에도 신기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급성 증상(탈수, 중증의 감염, 쇼크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 중증 감염증, 수술전후(수술과관련하여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하고)(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의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단된 후 다시 투여하십시오.], 중증의 외상환자

-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 간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가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합니다.), 폐경성, 중증의 폐기능 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상을 수반하기 쉬운 상태(심부전 또는 호흡부전, 최근의 심근경색, 쇼크 등),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자, 탈수증,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환자
- 알코올을 필요하는 율혈성질환 및 최근에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 중증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 또는 호흡장애가 있는 환자
 - 이 약은 유당을 포함하고 있어 갈락토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소 결핍증(Lapp lactose deficiency), 혹은 유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투약 첫 주에는 저혈당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환자 또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적 또는 혈조증상(고령에서 보다 자주 나타나)환자
 - 영양불량상태, 불규칙한 식사습치, 식사 거르기 환자
 - 근육운동과 탄수화물 섭취가 불균형을 이루는 환자, 격한 근육운동
 - 알코올을섭취자
 - 이 약을 과량복용한 환자
 - 비대상성 내분비계질환(예를 들어 갑상선이상, 뇌하수체전엽의 기능이상 또는 부신피질 부전질환): 이들 질환은 당대사, 또는 저혈당에 대한 신체의 역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 약제와의 병용투여(6.상호작용 항 참조)
만약 이러한 저혈당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용량 또는 투약법 전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약초기 기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 또는 환자의 생활방식이 비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진단적으로 진행된 저혈당, 고령자, 자율신경병 환자, 또는 고갑상선경역제를 병용투여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의 아드레날린성 역조절에 의한 저혈당의 재증상은 치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질병과 유산산증의 기능성일 수 있습니다.

- 이상반응
 - 유산산증: 경고, 일반적 주의 참조
 - 저혈당증: 경고, 일반적 주의 참조
 - 소화기 : 위장장애 증상(설사, 오심, 구토, 복부 부종, 고창, 식욕부진)은 이 약 투여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며, 특히 치료의 초기에는 위약 투여군에 비해 메트포르민 단독투여 군에서 약 30% 정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때때로 일시적인 용량감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초기동안 위장관계 증상은 용량과 관계없이 나타나므로, 용량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키나, 이 약을 식사와 함께 복용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설사 그리고/혹은 구토는 탈수와 신외성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조건하에서는 이 약은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 약에 안정화가 이루어진 환자의 경우, 비특이적인 위장관 제 증상은 치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질병과 유산산증의 기능성일 수 있습니다.

- 특정경각제 : 메트포르민 치료초기 동안, 약 3%의 환자가 불쾌하거나 급속히 용호하나, 보통 자발적으로 해결됩니다. 특히 투약초기에는 혈당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시각부전이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피부반응 및 과민증 : 때때로 알레르기 또는 일례르기 유사반응(예: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호흡곤란, 혈장항응고제를 수반한 심각한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고, 때로는 쇼크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두드러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음의 혈액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드물게 혈소판감소증, 매우 드물게 백혈구감소증이나 용혈성빈혈, 적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병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설포닐우레아제 약제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

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십시오.

-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복용해온 환자에서서 비타민 B₁₂의 혈장농도가 감소하였다. 혈장 염산 농도는 유익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거대적아구성 빈혈이 이 약 투여와 관련하여 보고되었고, 신경병의 증상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혈장 B₁₂값을 조절해야 모니터링하거나, 정기적으로 비경구적인 B₁₂ 보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간장 : 경우에 따라 간내 효소 증가, 간기능 손상(예:담즙관비장애, 황달) 및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기능부전에 이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성 혈관염, 피부의 광과민증, 혈청나트륨 농도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상반응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 예상치 못했던 변화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증 저혈당, 혈액상의 특정한 변화, 중증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 간부전 등의 몇몇 이상반응은 특정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돌발적이거나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자기가 있는 때까지 복용을 중지하십시오.

국내에서 실시한 제1상 및 공개 3상 임상시험에 의하면 본 제의 복용으로 인해 나타난 약물이상반응 중 기존에 알려진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 의 이상반응외에 예측되지 않은 약물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적 주의
 - 저혈당증 : 설포닐우레아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초기에 성공적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당 또는 약사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저혈당증의 증상으로는 두통, 심한 배고픔, 오심, 구토, 무력감, 졸림, 수면장애, 불안정, 공격성, 집중 부전, 주의 불분, 반응 이상, 우울감, 착란, 언어장애, 언어소실증, 시각이상, 떨림, 발진, 감각장애, 어지러움, 자기조절 실패, 설상, 비식경련, 의식 소실, 혼수, 약한 호흡, 느린 맥박이 있습니다. 또한 발한, 축축한 피부, 발한, 빠른 맥박, 고혈압, 두근거림, 협심증, 심부정맥과 같은 이드레날린성 역조절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저혈당의 임상 증상은 뇌졸중(stroke)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심한 저혈당의 경우에는 의사의 적극적인 처치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혈당은 당(글루코스 또는 설탕, 예를 들어 설탕당이나, 당이 첨가된 과일주스, 당이 첨가된 차 등)을 섭취함으로써 대부분 즉시 수정됩니다. 이를 위해 환자는 최소 20그람 정도의 당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저혈당의 위험성, 증상 및 치료, 저혈당 발생소인을 알고야 할 환자가족에게도 설명하십시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감미제는 저혈당을 조절하는데 효과적 아닙니다.

- 유산산증 : 유산산증은 드물기는 하나 심각하며, 이 약의 치료 중 메트포르민의 축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사성 합병증입니다. 발생한 경우에는 있어서는 50%가 치명적입니다. 유학한 조직의 저산증증과 저산소증이 있을 때, 유산산증은 당뇨병을 포함하는 병리생리학적 상태와 결부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산산증은 혈중 유산농도 증가(5mmol/L 이상), 혈중 포도자하, 음이온간의 차이가 높아나는 전혈청 불균형과 유산/피루베이트의 비가 증가하는 특징으로 합니다. 이 약이 유산산증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혈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5μmol/L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 있어 유산산증의 발현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습니다(약 0.003년/년간 1,000명 환, 약 0.015 치명적 년/년간 1,000명 환자). 보고된 경우는 선천적 신장질환과 신장 순환이 저하된 경우, 때때로 복합적인 약물적/수술적인 문제가 병합된 경우와 악성의 복합 투여 등을 포함 하는 신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입원중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 나이에 따라 증가 됩니다. 따라서 유산산증의 위험은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정기적인 신기능 모니터링과 이 약의 약제 유효농도를 사용함으로써 유익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약은 저산소증이나 탈수와 관계된 저증상의 존재시에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손상된 신기능은 유산배설능력을 유익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헐적인 임상적 혹은 실험실적 증가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이 약이 인슐린사이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받는 동안 급성 혹은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은 혈관방사선 조영제제나 수술전에는 일시적으로 투여 중지하도록 합니다. 유산산증의 시작은 때때로 구별이 어렵고 관대, 근육통, 호흡, 통증, 의식장애의 증가와 비특이적 복부 통증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을 수반합니다. 제논자하, 저혈당과 특징적인 증상을 수반하는 기림성 서부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이러한 증상의 가능한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는 만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혈장 전해질, 케톤체, 혈당, 혈중 pH, 유산농도 및 이 약의 혈중 농도도 유산산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이 약 어떤 용량에 안정화되면, 메트포르민 치료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위장관 증상은 약물과 관련된 기능성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위장관 증상은 유산산증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공복시 정맥 혈장 유산농도가 정상치의 상한 이 상이며, 5mmol/L 이하인 경우, 유산산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 활동 혹은 금체를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증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산산증은 케토산증(케톤농도와 케톤통증)의 증상이 있는 대사성 증증이 나타나는 당뇨병환자에 의심해야 합니다. 유산산증은 입원치료를 해야만 하는 의학적 위급상황입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산산증이 일어난 경우, 약물을 즉시 투여 중지하고 즉시 일반적인 보조 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약을 투여기 가능하기 때문에(좋은 혈액동태학적 조건에서 170mL/min이상의 청소율), 즉각적인 혈액투석은 신증을 정상화하고 축적된 메트포르민을 제거하기 위해 추천됩니다. 이러한 처치는 때때로 즉각적인 응급 처전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 최적의 혈당조절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약의 규칙적인 복용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2형당당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혈당증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혈당)의 임상증후구는 빈뇨, 갈증, 구갈, 피부건조 등입니다.

- 투약을 시작할 때 의사 또는 약사는 이 약의 효능 및 위험성, 그리고 식이요법·운동요법과 병행할 때 이 약의 효과 등을 환자에게 알려야하고, 또한 환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 모든 당뇨병 치료의 반응은, 정상적인 범위로 수치를 감시하할 목적으로 공복 시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용량 결정 초기에는 치료반응을 결정하는 데 공복시 혈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과 당화 혈색소 모두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치는 장기간 조율을 평가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 다른 의사 또는 약사에게 치료반응을 공유(예를 들어 입원시, 사고후, 공유일에 아플때 등) 환자는 자신의 당뇨병상태 및 이전의 투약경험 등을 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태(예: 외상, 수술, 발열성 감염증)에서 혈당조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혈당 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슐린요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투여하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혈당, 용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또한 당화 혈색소의 비율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약제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속히 다른 치료법으로 바꾸십시오.
- 특히 투여초기, 투여약물을 변경한 후, 또는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저혈당 또는 고혈당에 기인한 민첩성장애, 행동성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능력, 기계조작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기능에 대한 모니터링: 메트포르민은 신장으로 대부분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약의 축적과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의 부전 정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정상 상한치 이상의 혈장 크레아티닌 값을 갖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면 안됩니다. 고령자에 있어 노화는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최대 용량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치료 시작 전과 그 후 적어도 1년에 1회는 신기능을 검사해야 합니다. 신기능 저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기능 부전의 발현이 예상되는 환자는 신기능을 좀 더 자주 평가하고 신기능 부전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십시오.
- 신기능이나 이 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 투여: 신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유익적인 혈액 동태학적 변화를 야기시키거나 신세관 배출물로 배설되는 양이온 약물과 같이 이 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는 양이온 서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항고혈압제나 노제 치료를 시켰거나 NSAID 투여 초기와 같이 신기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당뇨병 유사증상: 제 2형 당뇨병의 진단이 확립된 환자에 대하여만 적용을 고려하십시오. 당뇨병 이외에도 내당능 이상, 오당당증 등 당뇨병 유사증상(신성 당뇨, 노인성 당대사 이상,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을 가진 질환이 있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13) 투여 중의 조절 : 투여 중에 투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감량이 필요한 경우 또는 환자의 약화, 감염증의 합병 등에 의해 효과가 없게 되거나 불충분하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 식사 섭취량, 체중변화율, 취미, 혈당치, 감염증의 유무 등에 유의하여 투여 지속의 여부, 투여량, 약제의 선택 등에 유의하십시오.

- 저산소증 상태: 어떠한 원인에 의한 실험관계 허혈(속), 급성 율혈성 심장마비, 급성 심장색과 저산소증으로 특징지를 얻은 다른 조건은 유산산증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신외성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약물을 즉시 투여 중지하여야 합니다.
- 알코올 섭취: 알코올은 유산 대사에 대해 이 약이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급성 혹은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경고해야 합니다.
- 비타민 B₁₂치: 임상적 중추 없이, 29주 동안 지속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성분 중 메트포르민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7%에서 시험 전에 정상 혈청 비타민 B₁₂값이었던 것이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B₁₂ 내부 비 복합체로부터 B₁₂-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빈혈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으며, 이 약의 투여 중지나 비타민 B₁₂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매년 혈액학적 수치들을 검사해야 하며, 명백한 비정상치는 즉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비타민 B₁₂나 칼슘 섭취 혹은 흡수가 부적절한 사람들)은 정상 이하로 비타민 B₁₂값이 감소할 소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2-3년 간격으로 일반적 혈청 비타민 B₁₂ 측정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전에 조절되었던 당도의 임상적 상태의 변화 : 실험실적 비정상이나 임상적질환 (특히, 골, 잘 정의되지 않은 질환)이 발현된, 전에 메트포르민 제제로 당도가 잘 조절되었던 환자는 즉시 케토산증이나 유산혈증의 발현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혈장 전해질, 케톤체, 혈당에 대해 검사하고, 만약 나타났다면 혈중 pH, 유산, 피루베이트와 이 약의 농도에 대해서도 검사해야합니다. 만약 어떠한 형태의 증증이 나타났다면 이 약을 즉시 투여 중지하고 다른 적절한과 올비른 검사를 시작하십시오.
- 혈당조절의 실패 : 어떤 당뇨병 치료법으로 안정화된 환자가 발열, 경련, 감염 또는 수면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조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일시적인 인슐린 투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염산염과 설포노스요법으로 2차적 실패가 되었다면, 인슐린 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직업의 환자 : 드물게 심한 유산산증, 중증의 자연성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고 있는 환자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하십시오. 또한, 유산산증 및 저혈당에 대한 주의에 대해 환자가 또 가족에게 충분히 철저하게 주의시키십시오.
- 환자를 위한 정보 : 환자들에게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대체요법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지시된 식이요법을 준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혈당, 당화 혈색소, 신기능, 혈액학적 수치 등 임상실험실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만환자는 저혈량 식이를 계속해야 한다. 의사는 이 약의 치료와 관련된 유산산증의 위험, 그 증상, 발생 조건을 알고 주의해야 하는 비와 같이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환자들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과, 근육통, 피로, 졸음, 또는 다른 비 특이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을 즉시 중지하고 의사에게 알리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일단 환자가 이 약의 어느 용량에 안정되면, 메트포르민 치료 개시 시에 흔히 나타나는 위장관계 증상은 약물과 관련된 기능성이 저습니다. 이 후에 발생하는 위장관계 증상은 유산산증 또는 다른 심각한 질환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저혈당증의 위험, 그 증상, 발생 조건 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약을 투여받는 동안 급성 또는 만성적인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 G6PD 결핍 환자가 설포닐우레아제 약물을 복용하면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글리메피리드는 설포닐우레아제에 속하므로 G6PD 결핍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해야 하며 비설포닐우레아제 약물로의 대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6. 상호작용

글리메피리드

이 약 투여중에 다른 약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다른 약제 복용을 중단한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약 또는 기타 설포닐우레아제 약제의 사용 경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 약은 cytochrome P450C29(CYP2C9)에 의해 대사됩니다. 그러므로 이 약과 CYP2C9 유도물질(예: 리팜피드) 또는 약제제(예: 플루코나졸)를 병용투여할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혈당강화작용을 증가시키는 약제: 인슐린제 및 기타 구경용 혈당강화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ACE억제제, 알로푸리딘(allopurinol), 단백용화소르비오제, 남프로판올제,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쿠마린계 약제, 시남소스파미드(cyclophosphamide), 디아소라리드(disopyramide), 펜플루타민(fenfluramine), 페니타마이드(fenytamido), 디소프라미드(dibates), 플루오티딘(fluxetine), 구아네티딘(guanethidine), 이포소파미드(ifosfamide), MAO억제제, 미코나졸(miconazole), 플루코사민(flucanazole), 파라아미노살리실산(para-aminosalicylic acid), 펜릭사필린(고용량을 비경구 투여 경우),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 아자프로파존(apazaprazone), 옥시펜부타존(oxyphenbutazone), 프로베네시드(probenecid), 퀴놀론계 항균제, 살리실산제, 설파퀴나존(sulfiquinazone), 클레리스타미안(clarithromycin), 설르아미드(sulfonamide),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트리트로쿠알린(tritoqualine), 트로포스파미드(trofosfamide), 고갑상선 억제제
- 혈당강화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 아세트아졸아미드(acetazolamide), 바르비탈산제 약제(barbiturates),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디아옥사이드(diazoxide), 이노제, 에피네프린(에피네프린) 또는 기타 고갑상선기능제, 글루카곤(glucagon), 완해제(장기간 복용용), 니코틴산(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에스트로겐(oestrogens), 프로게스테론(progestogens), 페노티딘계 약제(phenothiazines), 페니토민(phenytoin), 리팜피린(rifampicin), 갑상선호르몬제, 클로로프로마진, 이소아니리드
- 혈당강화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약제 : H₂수용체길항제, 클로니딘(clonidine), 레세르핀(reserpine)
- β-차단제는 내당능을 저하시킨다. 당뇨병 환자에서 내당능 저하는 대사조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β-차단제는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조절 실패에 기인함)
- 저혈당에 대한 신체의 아드레날린성 역조절 징후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는 약제: 고갑상선 차단제, 예: β-차단제, 클로니딘(clonidine), 구아네티딘(guanethidine), 레세르핀(reserpine) 등
- 급성 또는 만성 알코올 섭취는 이 약의 혈당강화작용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약의 병용투여에 의해 쿠마린계 항응고제의 작용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1) 다른 약제와 병용에 의해 유산산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것과 병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투여하십시오. : 요오드 요제, 신독성이 강한 항생물(클로타미신 등)

2) 다음 약제와 병용에 의해 혈당강화 작용이 증강 또는 감약될 수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혈당량 및 다른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투여하십시오.

- 혈당강화작용을 증가시키는 약제
인슐린제제, 설포닐아미드제 및 설포닐우레아제 약제, 알파-글리코시드 억제제(아카보제), 단백용화스테로이드, 구아네티딘, 살리실산제(아스피린), β-차단제(프로프라놀롤 등), 모노아민산화 효소억제제, 인지오신산 전환 효소 억제제
- 혈당강화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
에피네프린, 고갑상선증, 부신피질호르몬, 갑상선호르몬, 난포호르몬, 에스트로겐, 경구용피임약, 차아제와 기타 노제제, 피라진 아미드, 이소니아지드, 니코틴산, 페노치아진계 약제, 페니토인, 칼슘제길항제제, g2-작용제(살부타몰, 모모테를 등)

3) 글리부라이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인 환자에 대한 단회투여 연구에서 이 약과 글리부라이드의 병용 투여는 이 약의 약물 동태학적 혹은 약을 동태학적 성상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글리부라이드는 AUC와 Cmax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편차가 크다. 이 연구에서 단회 투여의 성격과 이 약의 혈당조절 효과와 약물 동태학적 상관관계에 있어 있는 것은 이런 상호 작용의 임상적 의의성이 불명확하게 되는 나타났다.

4) 푸로세미드 : 건강한 사람에게 단회 투여로 이 약과 푸로세미드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병용투여에 의해 각 물질의 약물 동태학적 수치치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푸로세미드는 이 약의 신장 청소율의 유의적인 변화없이 이 약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키며, 혈중 Cmax를 22%, 혈중 AUC를 15% 증가시켰다. 이 약과 함께 투여했을 때, 단일투여에 비해 푸로세미드의 Cmax와 AUC가 각각 31%와 12% 감소되었으며, 푸로세미드의 신장 청소율의 변화없이 최종반감기를 32% 감소시켰다. 만성적으로 이 약과 푸로세미드를 병용투여시 상호

작용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없습니다.

- 니페디핀 : 정상인 건강한 자원자에서 단회투여로 이 약과 니페디핀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니페디핀과의 병용투여가 이 약의 혈장 Cmax와 AUC를 각각 20%와 9% 증가시키며, 노제 배설을 증가시켰다. Tmax와 반감기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니페디핀은 이 약의 흡수를 촉진시켰다. 이 약은 니페디핀에 최소한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앙이온성 약물 : 이온적으로 신세관 분비로서 배설되는 양이온성 약물(예를 들어 아밀로라이드, 디곡신, 모로핀, 프로카인아미드, 퀴니딘, 퀴닌, 라니티딘, 트리암테네, 트림레프프람과 반코마이신)은 일반적인 신장세노관 이동체에 대한 경쟁으로써 이 약과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인 자원자에 대한 단회 및 다회 투여시에서 관찰된 이 약과 시메티딘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이 약의 최대 혈장 농도와 전체 혈중 농도를 60% 상승 시키고, 혈청과 전혈중의 이 약 AUC를 40% 증가시켰다. 단회 투여시 배설 반감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약은 시메티딘의 약물동력학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물상호작용이 이온적인 여지가 있지지(시메티딘 제외), 근위세관과 분비계를 통해 배설하는 양이온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자세한 환자 모니터링과 메트포르민염산염과/또는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의 용량조절이 추천됩니다.
- 기타 : 건강한 자원자에 대한 단회 병용 투여 연구에서, 이 약과 프로프라놀롤을, 이 약과 이부프로펜의 약물동력학적 성질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약과 혈장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므로, 혈장 단백질과 광범위하게 결합하는 설포닐우레아와 비교할 때, 살리실산, 설르노산, 클로람페니콜과 프로베네시드와 같이 단백질과 다량 결합하는 약물들은 상호작용이 적습니다.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동물실험에서 기형형성 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어 태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임부에게는 유산산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임신부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신부 또는 임신할 계획이 있는 환자는 의사에게 알리고 인슐린 요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유중인 컷트에서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은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인슐린요법으로 전환하거나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의 성숙기에서 나타나는 당뇨병(MODY)에 대해 행해진 연구는 없습니다.

-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의 신기능상조와 관련하여 이 약의 용량은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하여 조절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신기능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약 중 메트포르민은 신장으로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글리메피리드는 신장을 통해 상당한 양이 배설되므로, 부적절한 신기능을 갖는 환자에서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 개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임상감시자에서의 영향
정기적인 혈액학적 수치(예를 들어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 적혈구지수)와 신기능(혈장크레아티닌)의 모니터링은 최소 1년을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으로 치료 중 거대적아구성빈혈이 드물게 관찰되며, 이 것의 의심이 있다면 비타민 B₁₂ 결핍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 약은 글리메피리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량투여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리메피리드의 과량 복용이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십시오. 만약 의사의 처치 하에 있지 않으면, 환자는 가능한면 포도당 형태로 즉시 당을 섭취합니다.

의식의 소실 또는 신경학적 결과가 없는 경도의 저혈당 증상은 경구용 포도당을 투여하거나 약을 용량 및/또는 식사 패턴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합니다. 환자에게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사가 확인할 때까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글리메피리드의 위장흡수를 막기위해 초기에는 구토를 유발시키고 다음에는 환자에게 활성탄(흡착제) 및 황산나트륨(하제)을 함유하고 있는 정장용 료 또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하십시오.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된 경우, 위세척을 실시해야 하고 활성탄 및 황산나트륨은 나중에 사용하십시오.

이 약의 심각한 과다복용과 의식 소실, 심한 신장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조치와 입원이 요구됩니다. 저혈당성 혼수상태가 진단 또는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게는 농축 포도당 용액을 정맥 투여(예를 들면, 50% 포도당 용액을 급속 정맥 내 주입 또는 20% 포도당 용액 40mL 시약, 이후 혈당을 100mg/dL가 넘는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속도 보다 희석된 10%) 포도당 용액을 정맥주사)하십시오. 신장의 경우 글루카곤을 투여(예를 들어 0.5 내지 1mg을 정맥, 피하 또는 근육주사)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명백한 임상적 회복 후에 포도당 혈당을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특히, 영아 또는 소아가 사고로 글리메피리드를 복용한 경우에는 투여하는 포도당의 용량을 주의하여 조정하고 혈당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에 의해 조영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유산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산메트포르민염산염을 85그램까지 복용하여도,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많은 혈액 동태학적 조건하에서 170mL/분에 이르는 정승률로 투여됩니다. 따라서 이 약의 과량 투여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축적된 약물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혈액투석입니다.

12. 발암성, 변이성, 주대의 위험

글리메피리드

- 캣트: 대대 30개월간 완전한 식이상태에서 최대 5000ppm의 용량으로 투여한 시험에서(표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대한 최대 권장 용량의 약 340배) 발암성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마우스에서 24개월간 글리메피리드를 투여한 결과 용량과 관련된, 만성적인 해당 작용의 결과로 판단되는 양성의 해당선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마우스의 선종형성에 대한 무영향 용량은 완전식이 조건에서 320ppm 또는 46-54mg/kg/day였다. 이는 표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대한 최대 권장 용량의 1일 1회 8mg의 약 35배에 해당합니다.
- 글리메피리드는 일련의 in vitro와 in vivo 돌연변이 시험에서 돌연변이가 없었습니다.
- 최대 2500mg/kg의 용량으로(표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대한 최대 권장 용량의 1,700배) 노출된 수컷마우스 수태능에 대한 글리메피리드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글리메피리드는 최대 4000mg/kg의 용량으로(표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대한 최대 권장 용량의 약 4,000배) 투여하였을 때 수정 및 임착 캣트의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메트포르민

- 메트포르민 단독으로 캣트(104주 지속)와 마우스(9주 지속)에 대해 각각 900mg/kg/day와 1500mg/kg/day의 용량으로 장기간 발암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량은 체표면적을 기초한 사람의 일일 최대 허용량의 약 3배입니다. 암수 마우스 모두에서 이 약과 관련된 발암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유사하게 수컷 태에서 이 약에 의한 중앙 유발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0mg/kg/day로 투여한 암컷 캣트에서 양성 간질환 자가 용융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 복발돌연변이시험(S. Typhimurium), 유전자 돌연변이시험(마우스 임파구 세포), 염색체 이상변이시험(사람 임파구)을 통해 생체내 소핵시험(마우스 골수세포에서 이 약의 변이유발 가능성에 대한 증가는 없었습니다.)
- 암수 캣트의 수태능은 600mg/kg/day의 고용량, 또는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허용량의 약 2배를 투여했을 때 이 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13. 약물남용과 의존성
메트포르민제제는 일차적 혹은 이차적으로 재생성되는 약물이나 담금으로 남용을 야기시키는 약물동태학적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